

김녕 김씨(金寧金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노적봉(露積峰)

마을 앞산(山)이 벼단을 쌓은 모습이어서 노적봉(露積峰)이라 하는데, 숲이 많이 우거지면 마을에 새로운 부자(富者)가 난다고 하며, 산사태(山沙汰)가 나면 마을이 가난해진다고 전해진다.

제3절 금천1리(金川一里)[속명 : 씨나리]

1. 마을의 자연환경

금천1리의 속명은 씨나리이다. 동쪽으로는 유현산을 경계로 광품2리 새동막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기린산 진형골을 경계로 금천2리와 접한다. 남쪽으로는 신림들을 경계로 금천3리와 닿아있으며, 북쪽으로는 오대산을 경계로 광품2리 평전과 접한다. 금천1리는 음지마, 양지마, 산촌의 세 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지마을 원금천이라고 부른다. 주민들은 음지마는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으로, 양지마는 ‘소가 누워있는 와우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의 안산은 백암산이며, 주산은 칠보산이다. 임란 무렵 김녕 김씨(金寧金氏)인 김응선이 마을을 개척할 당시 마을 앞 내(川)에 ‘연쇠[무쇠가루]’가 흐른 것을 보고 씨나리가 지었다고 전한다. 마을 앞을 흐르는 금천리 계곡에 구암 황숙이 지은 관란정(觀瀾亭)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되었다. 1947년 문을 연 금천초등학교가 있었으며, 2000년 3월 온정초등학교와 통폐합되었다. 2004년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636년경에 김응선(金鷹銑)이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할 당시 앞 내(川)에 연쇠의 흐름을 보고 마을 이름을 씨가리라 하다가 1827년에 김치성(金致聲)이라는 선비가 씨를 금(金)으로, 나리를 천(川)으로 하여 마을 이름을 금천(金川)이라 지었다고 전한다. 1765년 무렵은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금양리에 속했으며, 1871년에 강원도 평해군 근서면 금진리로 개명되고, 1912년에 금천리로 분리, 개명되었다. 1917년에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로 재편되었으

며, 1971년에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1리로 편제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47세대가 거주하며 김녕 김씨(金寧金氏), 영천 이씨(永川李氏), 평해 손씨(平海孫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면소터(面所地)

약 70년 전에 면사무소(面事務所)가 있었던 곳이라 하여 면소터라 한다.

2) 사장(射場)

임란(壬亂) 때 의병(義兵)들의 사격훈련장이라 하여 사장(射場)으로 전해오고 있다.

3) 오대산(五台山)

온정면 금천리와 광품리 사이에 있는 산(山)으로 오르내리는 길이 험하여 ‘엿치’라 불렸으며, 이후 오대산(五台山)으로 변하였다.

제4절 금천2리(金川二里)[속명 : 두실(斗室)]

1. 마을의 자연환경

금천2리는 두실[두곡], 갑배[입암], 진티[진현]의 3개 자연마을로 이뤄져 있다. 동쪽은 기린산 진형골과 금천거랑을 경계로 금천1리 신촌과 접하고, 서쪽은 진티재를 경계로 소태2리 상소태와 닿아있다. 남쪽은 찬물내기등을 경계로 덕산2리 직천과 접하며, 북쪽은 반송등과 경계로 소태3리 하암과 닿아있다. 갑배마을의 뒷산인 기린봉을 문필봉이라고 부른다. 마을 회관은 1998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금천2리와 소태리의 경계 지점에 보광사가 있다.